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A Study of René Girard's Idea of Mimetic Rivalry from Bad Mimesis to Good Mimesis

이풍인 (Poong-In Lee)*

Abstract

Girard's theory of mimesis begins with his discovery of human mimetic desire in the works of five European novelists.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copy each other, not merely in exter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internal matters. For Girard, human desire is imitative and acquisitive. The pattern of desire is not linear but triangular: it runs from the subject through the mediator to the object. The distanc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model is what decides whether the mimesis between them will be in conflict or not.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books such as *Deceit, Desire, and the Novel*, *Violence and the Sacred*, and *Things Hidden*, scholars in many fields including anthropology, theology, psychology, law, politics, have been interested in his work. They have reacted to his theory. Some aspects of the criticisms above are worth considering, but Girard's theory of mimesis has some merits. Firstly, his understanding of mimesis provides a powerful tool for finding reality beyond the text. A text does not exist only for aesthetic enjoyment but also for practical contribution to human life. Secondly, Girard's enthusiasm to propose a theory and his effort to test its validity is admirable in a context in which cognitive nihilism is dominant.

In addition, Girard's theory demonstrates more clearly the aspect of Jesus' obedience to God. Jesus' willingness to follow the will of God the Father is expressed in the mode of good mimesis. Jesus' suffering and obedience, which accompany his humiliation and exaltation, are essential qualifications for him to overcome the power of the devil. He is presented as a model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to follow in their journey to glory and honor, which God the Father wants to bestow on them. In other words, Jesus' obedience and self-giving becomes the pattern of the non-rivalistic mimesis for the Christian life.

Key Words : René Girard, mimesis, mimetic rivalry, desire, mediation, triangular structure of desire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1년에 옥스퍼드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에서 바탕을 둔 것임.

* 충신대학교 신약학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poonginlee@chongshin.ac.kr
2018년 09월 01일 접수, 09월 12일 최종수정, 09월 14일 게재확정

1. 서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는 중요한 관심사다. 비(非) 신앙인과 비교할 때 신앙인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도 월등히 높다. 교회나 카페에서의 성도들의 모임에서 죄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주제로 등장한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대화가 매우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죄라는 단어는 사회규범을 어긴 범법 사실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여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도 정작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두루뭉술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본 연구를 위해 문화인류학자이며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사용할 것이다.¹⁾ 특히 그의 이론 중 모방적인 경쟁심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²⁾ 이 글에서는 모방적인 경쟁심과 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할 것이다. 구약성경, 중간기 시대의 유대문헌, 그리고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양상을 살피기 위해 여러 문학작품들도 살필 것이다. 이 글은 단지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르네 지라르가 성경에서 찾은 죄와 악의 극복 비결을

1) 한국에 지라르를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현을 들 수 있다. 그의 책,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는 지라르 사상에 대한 좋은 입문서다. 그 외 지라르의 다수의 책을 번역하고 지라르의 이론에 근거한 논문들을 쓰고 있는 김진식 교수와 지라르의 이론을 불교와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분석 작업을 한 정일권 박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라르의 이론을 성경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피는 작업이 소수 있었다. 구약의 입다 이야기를 다룬 이운경 교수와 신약의 빌레몬서와 요한삼서에서 적용한 차정식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2) 지라르의 모방적인 경쟁심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라르가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이루어졌다. 지라르에게 성경은 그의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공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다. 지라르의 이론을 성경에 적용할 때 두 가지 유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라르가 다루지 않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내용들에도 그의 모방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기존의 성경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관성 속에서 성도가 삶에서 모방적인 경쟁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II . 모방적 경쟁심에 관한 르네 지라르의 관심

르네 지라르는 문학평론가, 역사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다. 1923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문학의 다윈”³⁾, “사회과학의 아인슈타인”⁴⁾, 혹은 “기독교의 헤겔”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만큼 지라르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유행에 따라 연구주제를 바꾸거나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담론(metanarrative)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그의 관심은 한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초시간적인 진리를 찾는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특정한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학 비평, 철학, 인류학, 신학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켰다.⁶⁾ 그의 이론은 그리스와

3) 지라르가 2005년에 프랑스 최고 권위의 한림원 프랑세즈의 종신회원인 ‘불멸인(Les immortels)’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의 스탠퍼드 대학교 동료교수인 마이클 세레스(Michael Serres)가 한 찬사다.

4) 2015년 11월 4일에 지라르가 세상을 떠난 후 제리 보우어(Jerry Bowyer)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포브스(Forbes)**에 2015년 11월 30일에 기고한 글로 제목은 “René Girard, ‘Einstein of the Social Sciences’”다.

(<https://www.forbes.com/sites/jerrybowyer/2015/11/30/rene-girard-the-einstein-of-the-social-sciences-rip/#13b724435a1a>, 2018년 8월 29일 검색).

5) 1980년대부터 지라르는 ‘기독교의 헤겔’로 불렸다. 실제로 헤겔의 사상은 지라르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 지라르의 책과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을 원하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Michael Deguy와 Jean-Pierre Dupuy의 *René Girard et le problème du mal: Textes rassemblés par Michel Deguy et Jean-Pierre Dupuy*. 316-333; Alphonse Juilland의 *To Honor René Girard*. iii-xxxii; Mark I Wallace와 Theophus H. Smith가 편집한 *Curing Violence*. x-xiv; Willard M. Swartley의 *Violence Renounced: René Girard, Biblical Studies and Peacemaking*. 321-322; Richard J. Golsan의 *René Girard and Myth*. 181-199; James Williams의 논문, *The Innocent Victim: René Girard on Violence, Sacrifice, and the Sacred*. *Religious Studies Review*, 14(4), 320-324를 보라. 지라르의 책

다른 민족들의 다양한 신화들과 서구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진 플라톤(Plato), 소포클레스(Sophocles), 단테(Dante), 셰익스피어(Shakespeare)와 도스토예프스키(Dostoevsky) 뿐만 아니라, 뒤르켐(Durkheim),⁷⁾ 프로이트(Freud)⁸⁾,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⁹⁾를 포함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이론들과 기독교의 성경, 특히 4 복음서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라르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모방(mimesis) 혹은 모방적 경쟁심(mimetic rivalry)과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 mechanism)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모방적 경쟁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1. 지라르의 모방(Mimesis) 혹은 모방적 경쟁심

(1) 지라르의 모방에 대한 개념이해

인간 욕망의 모방적인 특성에 대한 지라르의 관심은 그의 이론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다양한 신화, 소설, 민담 등에서 이 모티프를 찾아내었다. 그는 영어 단어 imitation보다는 헬라어 단어 mimesis(미메시스)를 선호한다. 그런데 ‘미메시스’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하나의 공통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엄 워드(Graham Ward)는 미메시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마치 뱀장어의 몸을 손으로 만지면 쉽게 빠져나가는(slippery)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Ward, 1994: 3). 예를 들면, 미메시스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물들끼리의 생김새의 유사성을 설명할 때도 사용한다. 문학

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담고 있는 마이클 커윈(Michael Kirwan)의 *Discovering Girard*. 126-130는 지라르 읽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 지라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심 가치체계에 관심이 있었던 뒤르켐의 이론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지라르의 *Things Hidden*, 43, 63, 69-70, 82; *Violence and the Sacred*, 120, 306-307; *I See Satan*, 100; *Violent Origins*. 2, 13, 127을 참고하라. 이 논문의 각주에서 지라르의 글을 언급할 때는 축약된 형태로 할 것이다.

8) 프로이트는 지라르의 이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지라르의 책, *Violence and the Sacred*의 두 챕터 ‘Freud and the Oedipus Complex’와 ‘Totem and Taboo and the Incest Prohibition’, 그리고 *Things Hidden*의 3권 ‘Interdividual Psychology’에서 다루고 있다.

9) 지라르는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 타부와 친족 개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책의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Violence and the Sacred*, 223-249; *Things Hidden*, 5-6, 28-29, 39, 62, 74, 75-76, 105-125; *The Scapegoat*, 52-54; ‘Generative Scapegoating’, 12-14, 19, 86, 95, 193-194를 참고하라.

작품을 읽을 때 본문의 묘사가 독자의 마음에 실재(reality)로 새겨지는 과정을 미메시스라는 말로 묘사하기도 한다(Finamore, 2009: 61). 그러면 지라르에게 있어서 미메시스는 이러한 복잡한 개념을 다 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매우 단순하게 이해한다. 지라르는 의미만 놓고 보자면 미메시스가 영어 단어 imitation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왜 지라르는 미세시스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것일까? 지라르는 영어 단어 imitation은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는데 국한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imita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서는 갈등이나 충돌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라르는 모방 개념을 설명하며 갈등과 충돌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imitation으로서는 부족해서 굳이 헬라이어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Girard, 1987a: 18; 이풍인, 2014: 96-97).

지라르의 이론은 인간의 모방적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기초한다. 모방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들이 형성되기에 모방은 문화와 종교의 원동력이라고 지라르는 생각한다.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모방을 통한 갈등의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모방(acquisitive mimesis; Girard, 1987: 26)은 결국 갈등을 유발한다. 이성간의 삼각관계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같은 장난감을 두고 벌이는 다툼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모방을 통한 갈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방을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절제를 하기에 노골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성인들에게 모방적인 경쟁심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Girard, 1987a: 8-9).

(2) 외적 중재(External Mediation)와 내적 중재(Internal Mediation)

인간의 욕망은 타고 나는 것일까? 지라르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럼 독립적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다(Girard, 1977: 169-71). 그럼 무엇일까? 지라르는 욕망을 촉발시키는 중재자가 있다고 말한다. 설명하면 이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기 원한다. 그런데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은 어떤 모델의 중재(the mediation of model)나 중재자(mediator)를 필요로 한다. 지라르가 생각하는 욕망을 설명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체(subject), 중재자 혹은 모델(mediator or model), 그리고 대상(object)이다. 욕망의 구조

는 욕망하는 주체가 곧바로 대상을 얻는 직선적인 관계(a linear relationship)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중재자 혹은 모델이 필요한 삼각형 구조(triangular structure)라고 본다(Girard, 1978: ix; Girard, 1965: 41-42; Kirwan, 2004: 33).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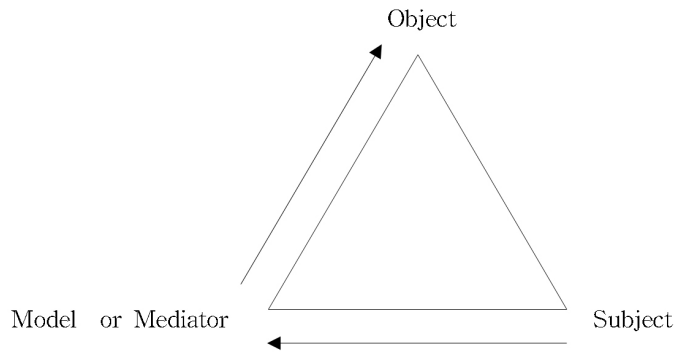


Figure 1. Triangular Structure of Desire

지라르는 중재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하나는 외적 중재(external mediation)인데, 이것은 행동의 주체가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model), 즉 중재자와의 거리가 멀어 단순한 모방으로 끝나기 쉽다.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의 아랫변의 길이가 긴 모습을 띠는데, 이 경우는 중재자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사회적 지위나 다른 요소들로 비교할 때 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좀처럼 갈등과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외적 중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르반테스(Cervantes)의 *돈키호테* (*Don Quixote*)를 들 수 있다(Girard, 1965: 9).¹⁰⁾ 중재의 두 번째 유형은 내적 중재(internal mediation)라고 부르는 것으로, 욕망하는 주체와 중재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다(Girard, 1965: 9). 위의 그림에서는 삼각형의 아랫변의 길이가 짧은 경우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난다. 형제나 사촌과 같은 가까운 관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에서 굳이 ‘사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

10) 1965년에 출판된 지라르의 저작인 *Deceit, Desire, and the Novel*의 챕터 1은 1996년에 James Williams가 지라르의 글을 모아 편찬한 *Girard Reader*의 챕터 3 ‘Triangular Desire’에 다시 수록되었다.

일까? 사촌이라는 관계가 내적 중재의 모방이 유발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이기 때문이다(이풍인, 2014: 98).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샀다는 뉴스를 들으면 일반 시청자들은 아무런 경쟁심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촌이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체와 중재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중재자는 경쟁자가 되고 주체가 목표하는 것(object)을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Girard, 1965: 41-42). 이와 같은 중재에서는 심한 경쟁과 폭력이 발생하는데, 좋은 예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를 들 수 있다(Girard 1965: 9). 이처럼 욕망의 삼각형 구도에서 주체와 중재자(혹은 모델) 사이의 거리는 모방의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문학작품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의 예들

많은 문학작품들이 모방적 경쟁의 모티프를 담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많은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대의 신화에 나오고 현대 소설에도 등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문학 장르 중에서 꼭 소설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화와 대중 드라마에서도 모방적 경쟁은 즐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지라르의 모방적인 경쟁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책 *Deceit, Desire, and the Novel*이다. 이 책의 불어판 원작의 제목은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인데 직역하면 ‘낭만적인 거짓과 소설적인 진실’이다. 지라르에게 *romantique*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이라는 말과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인간 욕망의 모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romanesque*는 ‘소설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욕망의 모방적인 성격을 드러낸 것이란 의미로 사용된다(Girard, 1965: 17; 이풍인, 2014: 97-98 참고). 지라르는 이 책에서 다섯 명의 작가들, 즉 세르반테스, 플로베르(Flaubert), 스탕달(Stendhal),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대해 다룬다. 지라르가 이런 순서로 작품들을 살피는 이유는 세르반테스부터 도스토예프스키로 갈수록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욕망은 점점 더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외적 중재’에서 ‘내적 중재’로 바뀌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말한 다섯 명의 작가들은 인간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acquisitive desire)’이 ‘갈등을 유발하는 욕망(conflictual desire)’으로 변하는 과정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작가들의 작품들은 ‘낭만적인 거짓’이 아닌 ‘소설적인 진리’를 잘 보여준다. 각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중재된 욕망의 부질없음이 잘 드러난다. **돈키호테**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인공은 죽음에 직면하여 자신의 이전의 삶을 거부한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판단은 자유롭고 분명하며, 기사도에 관한 책을 읽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무지의 두꺼운 담요를 자신이 더 이상 덮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 책들에 등장하는 것들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음을 후회한다. “I do not have time to make up for my mistake by reading other books which would help to enlighten my soul(나는 나의 영혼을 계몽시키는데 도움이 될 다른 책들을 읽음으로써 나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 Girard, 1965: 291-92).” 마지막 단계에서 이 소설들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환상을 포기한다. 이것은 일종의 회심, 즉 ‘욕망에 대한 승리(victory over desire)’라 할 수 있다(Girard, 1965: 300).

이어지는 내용은 지라르가 *Deceit, Desire, and the Novel*에서 살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 그리고 지라르의 *The Theatre of Envy*에서 다룬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에 관한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단순히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에 대한 묘사가 잘 담겨 있다. 등장인물인 돈키호테와 산초 판자(Sancho Panza)가 모험적인 여행을 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다. 알론소 퀴자노(Alonso Quijano)는 기사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보통의 스페인 아이이다. 그는 특별히 펠리치아노 드 실바(Feliciano de Silva)가 쓴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로 바꾸고 자신이 직접 기사가 되어 스페인을 돌아다닌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약한 노새인 로치난테(Rocinante)를 타고 다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며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돈키호테는 일반 여관을 마법에 걸린 성으로, 농부의 딸들을 아름다운 공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풍차를 보며 악한 마법사들이 보낸 거인이라 생각하여 싸운다. 이런 방랑의 여정을 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인물이 있다. 돈키호테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인데, 그는 바로 아마디스(Amadis)로 골(Gaul)의 유명한 기사였다. 아마디스가 그랬던 것처럼, 돈키호테는 자기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할 사랑하는 여인이 필요했다. 그는 자기 이웃집 농부의 딸을 돌치니 델 토보소(Dulcinea del Toboso)라고 상상한다. 그는

아마디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고행을 했던 것처럼 자신도 고행을 하기 위해 시에라 모레나 산(Sierra Morena mountain)으로 간다.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행을 준비하는 그의 말 속에서 잘 드러난다. “Refresh my memory, O Amidas, and teach me how I am to imitate your deeds(오 아마디스여,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모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오; Cervantes, 1949: 211; Golsan, 2002: 3 재인용; 이풍인, 2014: 99 참고).” 이 작품에서 돈키호테는 “삼각형 구도의 욕망의 전형적인 희생물”(Girard, 1965: 3)로 묘사되고, “기사도의 열정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욕망으로 정의된다”(Girard, 1965: 4). 그러나 돈키호테가 아마디스를 모방하지만,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방하는 주체와 모델의 간격이 큰 외적 중재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Kirwan, 2004: 25).

이어서 살필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의 *The Eternal Husband*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체가 담고자 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로서의 중재자의 이중적인 역할이 잘 드러난다. 중재자가 주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재자의 역할은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대상의 역할은 더 줄어든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Girard, 1965: 45, 47-50). 아내가 죽은 후에 파블 파블로비치(Pavel Pavlovitch)는 그의 아내의 이전 연인들을 만나기 위해 페테스부르크를 향해 떠난다. 아내는 죽었지만 그녀의 연인들은 살아있다. 대상은 없고 중재자만 존재하는 모습이다. 파블로비치는 자기 아내의 이전 연인 중 하나인 벨차니노프(Veltchaninov) 주위를 서성거린다. 지라르는 이 장면을 모방적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여인을 유혹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최상의 모델을 찾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 여성과 재혼하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의 이전 경쟁자였던 벨차니노프가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인을 만나도록 초대한다. 그는 자기의 경쟁자가 그 연인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 여인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두 남자는 같은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아이들처럼 한 여인을 놓고 싸운다. 결국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경쟁자에게 그 여인을 빼앗기고 만다(Girard, 1965: 47-50; Kirwan, 2004: 27-28).

지라르는 영문학의 거장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살피며 자신의 책 *A Theatre of Envy*에서 새로운 읽기를 제안한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시와 희곡들에서 시기(envy) 혹은 중재된 욕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Girard, 1991: 40-49). 이러한 주장은 매우 도발적인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는 『한 여름 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살핌으로 이것을 입증한다. 이 작품 속에는 네 명의 청년 남녀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짝을 바꿔가며 사귀면서 지라르가 말한 욕망의 삼각형 구조 위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갈구한다. 청년들은 같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다가 또 다른 여인에게로 관심이 옮겨진다. 이런 모습은 연인을 찾는 두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극 중에서 헤르미아(Hermia)의 “to choose love by another’s eyes(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란 대사는 중재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Girard, 1991: 72-79; 이풍인, 2014: 97 참고).

요약하면, 지라르에게 인간 욕망은 삼각형 형태의 중재된 욕망이다. 세 가지 요소, 즉 갈망하는 주체, 얻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갈망이 습득되는 모델 혹은 중재자가 있다. 욕망은 중재자를 모방함을 통해 습득되는데, 주체는 중재자 혹은 모델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한다. 주체와 중재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주요한 요소다. 둘 사이가 멀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고, 반면에 둘 사이가 가까우면 갈등은 심화되고 급기야 폭력으로 발전한다. 지라르는 이렇게 발생한 갈등과 폭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든다. 이것은 모방적인 경쟁심과 더불어 지라르 사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Ⅲ. 신구약성경과 유대 중간기 문헌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심

성경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책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첫 책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과 폭력을 접하게 되고 독자들은 적잖게 당황하게 된다. 왜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책에 폭력과 살인이 등장할까? 위에서 지라르가 소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최악의 기원으로서의 모방적인 경쟁심과 그것이 잘 드러난 신구약성경 속의 몇몇 장면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죄와 악의 뿌리로서의 모방적 경쟁심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2-14절은 우리에게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 대해 묘사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으나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된 하늘의 존재에 대해 말한다. 이 구절을 지라르의 관점에서 읽으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높아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탄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시기한 모방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최초의 모방자였던 사탄은 이후의 모든 잘못된 모방적 경쟁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Munk, 1990: 258). 이사야 14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잘 어울리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책이다.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쓴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기독교적인 작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대 혹은 기독교적인 기원을 떠나서 이 책 12-16장에서는 아담의 창조와 천사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Charlesworth, 1985: 249-57).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기 천사들을 불러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신다. 그 명을 받고 천사장 미카엘을 포함하여 천사들이 아담에게 와서 절을 했다. 그러나 절하기를 거부하는 천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담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과 더 좋은 재료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는 결국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난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존귀한 지위에 이른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인간이 누리려는 그 지위를 시기하고 그런 일을 행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의 저자는 시기, 자기 높임과 불순종을 악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풍인, 2006: 213).

창세기 2-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창 2:16-17)은 금지를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amerton-Kelly, 1985: 92). 우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경쟁과 무질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의 원천의 모습을 발견한다(창 3:4-5,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

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Munk, 1990: 259).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본 나무는 이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었다.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뱀이 말한 대로 지혜를 가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욕망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변하여 모방적인 경쟁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길 거부하며 홀로 금지한 대상을 가지려는 ‘인간과 경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친다. 그런 하나님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의 갈망을 갈망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Hamerton-Kelly, 1985: 92; 이풍인, 2006: 213). 여기서 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게 만든다(Munk, 1990: 259). 또한 하나님의 금지의 내용을 강화한다. 금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금지의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갈망은 더 커지게 된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며 흔히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라드의 관점으로 보면 원죄는 욕망의 부패이며, 하나님이 모델이자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된 사건이다(Hamerton-Kelly, 1985: 93).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금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기 원하시는 것을 독점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방을 방지하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Hamerton-Kelly, 1985: 93). 기원전 1세기나 주후 1세기 초반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대문헌(deSilva, 2000: 1268)인 솔로몬의 지혜서 2장 24절에서는 “By the envy of the devil death entered the world.(마귀의 시기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적고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인간의 타락 사건을 마귀의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모방적 경쟁심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Girard, 1978: 149-53; Girard, 2001: 107-20; Schwager, 1987: 71-72). 그는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다. 요셉은 십칠 세의 소년이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노년

에 얻었기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겉으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났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게 했다. 여기서 채색옷은 단지 여러 색깔의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족이나 고관들에게 적합한 옷을 의미한다(Goodhart, 1978: 99).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꾀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요셉의 곡식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었다. 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곡식 단이 ‘서는 것(rising up)’인데, 그것은 요셉의 높아짐을 의미한다(Goodhart, 1988: 100).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겠느냐?”라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라며 형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충애를 받는 데다 그가 꾀 두 개의 꿈은 형들로 하여금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간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 넣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한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진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간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한다. 형들은 요셉이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말한다. 그들은 요셉의 꿈의 내용을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이야기로 대체한다(Goodhart, 1988: 104). 그들의 행동은 요셉을 향한 모방적인 경쟁심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요셉이 채색옷으로 구별되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그들도 받기 원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대상이며 요셉은 모델이나 중재자가 된다. 꿈을 통해 이것은 더욱 심화된다. 요셉은 꿈을 꾀 후에 그 내용을 말함으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형들은 중재자인 요셉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도 갈망한다. 결국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요셉이 갈망하는 것을 빼앗고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형제라는 관계는 갈망하는 주체와 모델 혹은 중재자 사이의 거리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가깝다. 내적 중재가 발생하기 쉬워 자연스럽게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서 다루게 될 사건들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이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온

다.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섬기는 모세를 시기하고 있다(Schwager, 1987: 72).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민 12:2).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신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나의 뜻을 전하였지만 모세는 다르다. 내가 대면하여 그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 그를 비방하느냐?”고 꾸짖으신다(민 12:6-8).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시자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다. 그것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간청한다. 아론이 말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시기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세가 누리는 것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는데 모세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모방적인 경쟁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슬러 시기와 비방을 하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온다. 레위의 후손인 고라를 필두로 하여 다단, 아비람과 온이 파당을 만들었다(Schwager, 1987: 72).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여 모세에게 대적했다. 그들은 아론과 미리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비방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레위 지파에 속하여 성막을 섬기는 일이 중한데, 어찌 제사장의 직무를 요구하느냐?”고 그들을 꾸짖었다(민 16:9-11).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고(민 16:28),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하셨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고라를 포함한 ‘이름 있는’ 지휘관들은 죄의 특성인 자기 높임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모세가 누리는 지도자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아론이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그들도 가지기를 갈망하였다. 모방적인 경쟁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릇된 욕망은 그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노래한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은 사울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한 사람을 향한 시기와 모방적인 경쟁심이 얼마나 무섭고 파국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 사울 왕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다(Schwager, 1987: 72-73). 이외에도 구약성경

에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드러내는 여러 장면들이 있다.

신약성경에도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의 대화다(막 9:33-37).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길 단락(8:27-10:52)’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가야하는 길인가?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막 8:34).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 숭고하고 비장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명을 따라 걷는 주님과와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수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막 9:30-32).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변론하고 쟁론을 벌인다. 주제는 ‘서로 누가 크나?’는 것이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꼴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 9:35).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수난 당하실 것에 대해 세 번째 예고하신다(막 10:32-34). 이어지는 단락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부탁한다. 그 내용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다(막 10:37).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낸다. 그들도 마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수께서는 시기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신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하심으로 세상의 방식을 뒤엎으신다. 스승이신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뿌리인 시기와 모방적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죄가 인간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IV. 모방적 경쟁심을 극복하는 비결

죄의 뿌리인 모방적인 경쟁심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구출될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은 사탄과는 정반대였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생애는 모방적인 경쟁심과는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비참함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왜곡된 욕망의 치료제로서의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모방적인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살 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vs 사탄의 불순종

사탄은 모방적인 경쟁심을 주관하는 자로 갈등과 폭력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예수의 모방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탄의 것과 전적으로 달랐다. 예수의 모방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진다(Alison, 1998: 168).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하게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하게 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자기를 내어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Fodor, 2000: 256-57). 빌립보서 2장 5-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잘 보여준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녔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한다(Carson, 1975: 551).¹¹⁾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는 사탄이 주도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위로 향하는 모방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아래로의 모방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모습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히

11) 디트리히 본헤퍼(Dietrich Bonhoeffer)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비움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짐을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2장 5-18절에 잘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 2장 6-8절은 시편 8편 4-6절의 인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는 일시적인 낮아짐에 대해 말한다. 시편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있다. 둘째는 아들이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신적인 지위가 아닌 그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Smothers, 1985: 339). 인간과 같게 되어 천사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비하를 끝내고 높아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다(Peterson, 1982: 55; Attridge, 1989: 72-73). 여기서 예수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가는 아래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예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아버지를 닮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고자 했다(Girard, 2001: 13). 반면에 사탄은 어떨까? 지라르는 그리스도의 모방과 사탄의 모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사탄)는 예수의 옳고 순종적인 모방과는 가능한 한 정반대로 시기로 가득하고 기괴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든 것들 속에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유지한다. 반복하면, 사탄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방꾼이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caricature)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흉내쟁이(ape)다(Girard, 2001: 44-45).

히브리서 2:10-18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히브리서 연구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중요한 연구주제였으나,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내용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수의 맏아들이심은 히브리서 1장 6절의 도입부인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고, 히브리서 2:5-18절에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의 맏아들이심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장 10절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표현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성도는 그의 동생들로 묘사된다(2:11, 12, 13, 14, 17; 3:1; Gray, 2003a: 338).¹²⁾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것을 명확히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한 근원’인데, 헬

12)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묘사하는 신약성경 구절로는 롬 8:29, 골 1:15, 18, 계 1:5를 들 수 있다.

라이어로는 ‘하나로부터’를 의미하는 ‘헤노스(ένός)’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¹³⁾ 이 표현은 ‘하나의 기원(one origin)’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운명(one destiny)’를 가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럼 같은 운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Miller, 1969: 416). 만아들은 우리말 성경에서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아르케고스(ἀρχηγός)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히 2:10), 이 말은 ‘리더’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아들인 예수에게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라는 역할을 맡기셨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 구원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는 인간들과 조화를 이룸으로 구원의 리더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버지를 향한 만아들의 태도는 히브리서 2장 12-13절에 나오는 시편 22장 22절과 이사야 8장 17-18절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2:11; Peterson, 1982: 61). 만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히 2:12; 시 22:22).”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히 2:13; 사 8:17).” “불지어나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히 2:13; 사 8:18).” 이 단락은 동생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남이 동생들과 그들이 받을 상속물을 돌보는 ‘약자를 위한 후견인 제도(tutela impuberum)’의 배경에서 읽을 수 있다(Gray, 2003b: 126; Gray, 2003a: 340). 예수는 성도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동생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

(2) 성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본혜퍼는 그의 책 *The Cost of Discipleship*의 마지막 문장에서 분명한 대답을 한다: “The follower of Jesus is the imitator of God(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다; Bonhoeffer, 1959: 273; Carson, 1975: 550 재인용).” 성도의 제자도는 하나님을 모방하신 예수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13) 블릭(Bleek), 리겐바흐(Riggenbach), 부케넨(Buchanan), 휴즈(P. E. Hughes), 애트리지(Attridge), 그레이(Patrick Gray)와 같은 학자들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한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모델이다. ‘바라본다(아포라오, ἀφοράω)’는 ‘응시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격려와 지지를 예상하며 바라보는 의존적인 감정이 포함된 말이다(Croy, 1998: 174).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채워졌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모방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인간과 경쟁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릇된 모방을 하게 했던 사탄과 달리, 그리스도는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다. 예수의 모방을 닮고자 하는 자들의 모방의 방향은 아래로 향하고, 모방의 내용은 자기 낮춤과 자기 버림이다(Alison, 1998: 176).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기 원하는 모방의 방향은 위를 향한다. 이러한 모방은 과당과 분쟁을 불러오는데, 고린도교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다(고전 4:16).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의 학식, 능력과 은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일까? 그렇지 않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거처가 없고, 사도지만 손수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신의 모습, 한 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다(고전 4:9-13).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고 밝힌다(고전 11:1).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비방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비방을 감내하는 약함의 사도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Harmerton-Kelly, 1985: 69-70). 이러한 삶을 본받을 때 자만과 모방적 경쟁심으로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은 비로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지라르의 모방 이론은 최악의 속성을 잘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좋은 모방을 성도의 삶의 윤리로 제시한다(Dunnill, 1996: 108).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 중재자를 통해 대상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되는 모방적인 경쟁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사랑과 자기를 내어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본받으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갈등과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Hardin, 1992: 382).

V. 결론

2015년 11월 4일은 이 시대의 지성인 중의 한 사람인 르네 지라르가 우리 곁을 떠난 안타까운 날이다.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의 사상은 오래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20세기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거대담론이 줄어든 시대였다는 것이다. 분야에 상관 없이 원리보다는 각론에 관심을 더 기울인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신학, 인류학, 철학 등등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곳곳하게 외길 인생을 걸은 지라르의 삶은 미지의 세계의 새로운 길을 찾는 개척자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대 신화, 민담, 역사, 문학, 인류학, 철학, 그리고 신학과 인문학 전반에 관심을 가졌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가졌다. 그의 이론은 여러 학문영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성경 신학 전공자인 필자의 지라르에 대한 평가는 역사 비평을 통해 ‘그때 거기(there and then)’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지금 여기(here and now)’로 끌어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본다. 성경이 더 이상 케케묵은 과거 이야기로 채워진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생명력 넘치는 살아 숨 쉬는 책이 되게 했다.

그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이 논문에서 다룬 미메시스 혹은 모방적 경쟁심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는 미메시스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주체, 중재자 혹은 모델, 그리고 대상으로 설명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니는데, 주체는 중재자를 통해 대상을 가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방은 주체와 중재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마침내는 폭력으로 번지게 한다. 지라르는 이런 욕망의 잘못된 모방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성경이다. 그는 잘못된 모방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좋은 모방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가치를 빛나게 하였다.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릇된 모방과 사랑과 조화를 가져다주는 좋은 모방 사이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 이론을 성경과의 상관성 가운데 살핌으로 죄가 단순

히 거룩과 부정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모방과 시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도구인 나쁜 모방의 희생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모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라르 이론의 한 축인 미메시스만 다루었기에 개인의 삶과 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희생양 모티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 논문은 동전의 양면 중 한 면만 설명한 셈인데, 다음 기회에 동전의 다른 한 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 현 (1987). *르네 지라르 혹은 욕망의 구조*. 서울: 나남.
- [Kim, H. (1987). *René Girard or the Structure of Violence*. Seoul: Nanam.]
- 이풍인 (2006). 우리 구원의 리더이신 예수님. 김광건 (편저). *하나님 나라와 리더십* (pp. 197-215).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 [Lee, P. I. (2006). Jesus, A Leader of Our Salvation. In Kim, K. G. (Ed.). *The Kingdom of God and Leadership* (pp. 197-215). Seoul: Westminster Press.]
- 이풍인 (2014). 세월호 참사와 희생양 메커니즘. *신학지남*, 81(2), 87-110.
- [Lee, P. I. (2014).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Scapegoat Mechanism.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81(2), 87-110.]
- Alison, James (1998). *The Joy of Being Wrong: Original Sin through Easter Eyes*. New York: Crossroad.
- Attridge, Harold (1989).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 Bonhoeffer, Dietrich (1959).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 Carson, Ronald A. (1975). The Motifs of *Kenosis* and *Imitatio* in the Work of Dietrich Bonhoeffer, with an Excursus on the *Communicatio Idiomatu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XLIII, 542-553.
- Charlesworth, J. H. (Ed.) (1993 & 1995).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Garden City. New York.
- Croy, N. Clayton (1998). *Endurance in Suffering: Hebrews 12:1-13 in its Rhetorical, Religious, and Philosophic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guy, Michael and Dupuy, Jean-Pierre (1982). *René Girard et le problème du mal: Textes rassemblés par Michel Deguy et Jean-Pierre Dupuy*. Paris: Bernard Grasset.
- deSilva, D. A. (2000). Wisdom of Solomon. in Craig Evans & Stanley Porter. (Eds.) (2000).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L: IVP, 1268-1276.
- Dunnill, John (1996). Methodological Rivalries. *JSNT*, 62, 105-119.
- Finamore, Stephen (2009). *God, Order, and Chaos: René Girard and the Apocalypse*. Milton Keynes; Colorado Springs; Hyderabad: Paternoster.
- Foder, Jim (2000). Christian Discipleship as Participative Imitation: Theological Reflections on Girardian Themes. in William M. Swartley. (Ed.) (2000). *Violence Renounced*. Telford: Pandora Press. 246-276.
- Girard, René (1965).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 Structure*. Trans. Yvonne Freccer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Paris: Grasset. 1961.
- _____ (1977). *Violence and the Sacred*. trans by Patrick Greg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Grasset, 1972.
- _____ (1978). “*To Double Business Bound*”: *Essays on Literature, Mimesis, and Anthrop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Scapegoat*. Ttrans. Yvonne Freccer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Le Bouc émissaire*. Paris: Grasset. 1982.
- _____ (1987a).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rans. Stephen Bann and Michael Mette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as *Des Choses cachées depuis la fondation du monde*. Paris: Grasset, 1978.
- _____ (1987b). ‘Generative Scapegoating.’ in Hamerton-Kelly. (Ed.) (1987). *Violent Origins: Walter Burkert, René Girard, and Jonathan Z. Smith on Ritual Killing and Cultural 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73-145.
- _____ (1991). *A Theatre of Envy: William Shakespea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Inc.
- _____ (2001). *I See Satan Fall like Lightning*. Trans. James G. Williams. New York: Maryknoll. Originally published as *Je vois Satan tomber comme l'éclair*. Paris: Grasset. 1999.
- Golsan, Richard J. (2002). *René Girard and Myth*. New York & London: Garland.
- Goodhart, Sandor (1988). I am Joseph: René Girard and the Prophetic Law. in Paul Dumouchel. (Ed.) (1988). *Violence and Truth: On the Work of René Girard*. London: The Athlone Press. 53-74.
- Gray, Patrick (2003a). Brotherly Love and the High Priest Christology of Hebrew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2(2), 335-351.
- Gray, Patrick (2003b). *Godly Fear: The Epistle to the Hebrews and Greco-Roman Critiques of Superst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Hamerton-Kelly, Robert (1985). A Girardian Interpretation of Paul: Rivalry, Mimesis

- and Victimage in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Semeia*, 33, 65-81.
- Hardin, Michael (1992). Mimesis and Dominion: The Dynamics of Violence and the Imitation of Christ in Maximus Confessor.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36(4), 373-385.
- Juilland, Alphonse (Ed.) (1986). *To Honor René Girard*. Saratoge, CA: Anmi Libri.
- Kirwan, Michael (2004). *Discovering Girard*.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 Munk, Linda (1990). The Design of Violence. *Journal of Literature & Theology*, 4, 251-262.
- Peterson, David (1982). *Hebrews and Perfection: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Perfection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SNTSMS*, 4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Schwager, Raymund (1987). *Must There Be Scapegoats? Violence and Redemption in the Bible*. New York: Harper & Row. Originally published as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München: Kösel-Verlag. 1978.
- Smothers, Thomas G. (1985). A Superior Model: Hebrews 1:1-4:13. *Review and Expositor*, 82, 333-343.
- Swartley, Willard M. (Ed.) (2001). *Violence Renounced: René Girard, Biblical Studies and Peacemaking*. Telford, PA: Pandora Press US.
- Wallace, Mark I. and Smith, Theophus H. (Eds.) (1994). *Curing Violence*. Sonoma: Polebridge Press.
- Ward, Graham (1994). Mimesis: the Measure of Mark's Christology.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ology*, 8(1), 1-29.
- Williams, James (1988). The Innocent Victim: René Girard on Violence, Sacrifice, and the Sacred. *Religious Studies Review*, 14(4), 320-326.

논문초록

르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 : 나쁜 모방에서 좋은 모방으로

이풍인 (충신대학교)

지라르의 모방이론은 유럽의 다섯 명의 소설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모방 욕망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서로 모방하는데, 단지 외적인 특징들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들도 모방한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모방적이고 소유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본다. 욕망의 패턴은 직선적이지 않고 삼각형 구조를 띤다. 주체는 모델 혹은 중재자를 통해 대상에게로 나아간다. 주체와 모델 사이의 거리는 그들 사이의 모방이 갈등을 유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지라르가 *Deceit, Desire, and the Novel*, *Violence and the Sacred*와 *Things Hidden*을 출판한 후에 인류학, 신학, 심리학, 법학, 정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그의 이론에 반응했다. 비판도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모방에 대한 지라르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지닌다. 첫째, 그의 모방에 대한 이해는 본문 너머에 있는 실재를 발견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본문은 단순히 심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거대담론에 해당하는 그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실험하는 그의 노력과 관심은 인식론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거대담론을 피하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지라르의 이론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순종의 양상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는 예수의 마음은 좋은 모방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수반한 예수의 고난과 순종은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다.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명예로 가는 여정에서 따라야 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순종과 자기를 내어준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비경쟁적인 패턴이 된다.

주제어 : 르네 지라르, 미메시스, 모방적 경쟁심, 욕망, 중재, 욕망의 삼각형 구조

